

인하사회과학논총

In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1 2016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인하 사회과학논총

In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1, 2016

<목 차>

인천 가치 재창조 연구	김천권	5
시민사회와 행정	정일섭	19
A Discours on Problematique of Decentralization and Critical Civil Societies in South Korea	서규환	47
이민자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와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정영태	63
중국대학의 관료주의 문화	정하영	91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비교를 중심으로	장부년	119
해방의 잠재력으로서의 "기억의 정치학" : 벤야민의 "기억" 개념을 중심으로	박상희	143
한국 선거에서 불평등 민주주의 : 제18대 대선 소득별 투표 행태 분석	서희원	159
영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윤주엽	185
부록 논문작성 및 집필요강		205

인천 가치 재창조 연구

김천권*

본 논문은 인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이론적 논거, 정책의 틀, 그리고 접근방식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천시가 새로운 천년시대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굴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황해 중심시대에 중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내생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인천 가치재창조, 새로운 밀레니엄, 중국굴기, 황해시대, 도시경쟁력

I. 문제의 제기와 인천 가치재창조의 목적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¹⁾을 경험하고 있다. 2016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의 핵심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사회는 18세기 후반 이후 제1차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과 공장제 공업사회, 제2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의 분업과 전기 및 대규모 생산체제 도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으로 전자 및 IT(정보기술) 그리고 자동화 생산의 시대를 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선진사회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도 여기에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위한 과학 기술 연구와 개발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때이다.

*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ckkim@inha.ac.kr)

1)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만드는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제품이 고난도 문제 해결사로 등장한다. 산업과 사회, 통치시스템은 물론이고 사는 방식까지 혁명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다. Io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이버와 현실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으로, 지능형 CPS(cyber-physical system)를 구축한다. 하드웨어는 스마트폰처럼 데이터를 축적해 해석하며 자동 갱신한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해 자동화가 일어난다.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어와 이미지를 처리해 복잡한 의사 결정까지 할 수 있다. - 다보스포럼, 4차 산업혁명 기대와 우려 교차(전자신문 2016).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천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에 조성 중인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히 글로벌 조직 및 산업 활동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한국과 글로벌 사회를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과 거점으로 건설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천이 도시경쟁력을 갖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인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사회의 경쟁력,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Navigat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Revolution	Year	Information
	1 1784	Steam, water, mechanical production equipment
	2 1870	Division of labour, electricity, mass production
	3 1969	Electronics, IT, automated production
	4 ?	Cyber-physical systems

▲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갈무리

<그림 1>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산업혁명 요약

2016년 현재는 시기적으로 2000년대가 시작하는 초입에 있다. 지금 인천의 기틀을 잘 잡느냐에 따라 2000년대 글로벌 시대에 인천이 도시 경쟁력을 갖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만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탓에 도시 발전과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골치 아픈 마당에 '가치 재창조'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²⁾ 인천시는 그러나 가치 재창조 사업이 21세기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2)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가치 재창조 사업이 관(官) 주도의 일방 캠페인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범시민 네트워크에 불참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시는 인천 섬·바다의 가치를 발굴하겠다면서 인문지리·자연생태에 대한 고찰 없이 또 하나의 개발계획만 세워놓았다"며 "진정성과 철학이 없다면 가치 재창조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 2016.2.8. 기사).

있다.

가치 재창조 사업이 한편으로는 유흥복 시장의 재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재선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공선택론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민에 의한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합리적 목적은 재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김천권 2014).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지역의 미래와 연계시켜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도시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평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이 인천의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시 경쟁력 신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가치 재창조의 이론적 논거를 탐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논문의 구성을 보면, 제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과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이론적 논거를 탐색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정책의 기본 틀을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연구의 요약을 제시하였다.

II.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이론적 논거

1. 인천 가치 재창조 개념정립

인천 가치 재창조는 시기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 첫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천을 있게 한 내생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확인, 발굴 및 계승하는 작업이다.

- 둘째는 현재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천년(2000년대)을 이어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이다.

첫째, 인천이 오랜 역사를 버티며 성장한 배경에는 인천만이 갖는 고유한 내생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생적 요소를 발굴 및 계승함으로써 타 지역이 모방복제할 수 없는 인천 특유적 가치를 창출하여 도시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인천을 둘러싼 국내 및 글로벌 환경을 고찰하여 새천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을 둘러싼 국내 및 글로벌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천의 도시경쟁력

증대를 위한 장기적 정책과 전략이 수립될 것이 요구된다.

2. 인천 가치재창조가 요구된 사회적(역사적) 배경

최근의 사회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속사회로 부르는데, 인천의 가치재창조가 요구되는 주요 사회적 배경은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의 출현
- 2000년대 중국 굴기(崛起)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동구권 붕괴에 따른 사회변화는 지역과 세계를 직접 연결시키는 글로벌 시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무한경쟁시대를 초래하였다. 국가가 주도권을 장악하던 국제사회에는 국가경계가 완충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가의 완충역할은 점차 기능을 상실하고, 경제는 산업 및 도시들 사이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국가는 글로벌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너무 작은 조직체인 동시에 글로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너무 비대한 조직체로서 기능의 상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제 글로벌과의 연계와 대면(interface)은 도시가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20세기까지는 국가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형성한 반면, 21세기부터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의 역전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인천 도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도도시인 인천 경쟁력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도래하였고, 인천의 가치재창조는 지역적으로 인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문화가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문명의 서진설(西進說)³⁾, 슈펜글러의 서구의 몰락 등은 인류역사의 중심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동방(orient)에서 시작된 문명은 중동(메소포타미아)과 이집트를 거쳐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하였고, 그리스 몰락과 함께 로마제국이 등장하여 지중해 시대를 열었다. 로마제국의 몰락 후 1000년의 암흑시대가 전개된 후에 피렌체, 베네치아 등 도시국가를 중

3) 오래전부터 서양에는 문명 서진설(西進說)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올림픽 역사를 통해서 보면 문명 잡히는 구석이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그 발상지에서 유럽대륙을 횡단해 대서양을 건너 영국·미국으로 오고, 다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한 올림픽의 문명 바람은 마침내 일본 도쿄 올림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왔다. 거기에서 계속 서진한 것이 한반도의 서울 올림픽이었으며 한 발짝 더 서쪽 대륙으로 다가선 것이 베이징 올림픽이다. 개최지만이 아니다. 도쿄에서는 유도가, 서울에서는 태권도라는 민족 고유의 경기가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비록 공식 종목으로 부결되기는 했으나 중국 전통무술은 올림픽 개최 기간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서 공개경기로 인정받았다. 분명히 아시아 문화의 세계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어령 2008).

심으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중상주의의 발달과 함께 자유주의의 모태가 된 암스테르담의 발전, 그리고 도버 해협을 건너 178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발생하였다. 이후 1900년대에 접어들어 유럽의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의 주도권은 대서양을 넘어 미국으로 이전하였으며, 지난 100년 동안 동서 냉전체제에서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쟁취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시대를 구가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동방에서 시작된 역사와 문명은 중동을 거쳐 그리스·로마의 지중해 시대를 열었고, 산업혁명의 발발과 함께 지중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대영제국 전성시대를 가져왔으며, 190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의 주도권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전하는 서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부터 전개되는 2000년대에는 세계의 주도권이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이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징조들이 중국 굴기에 의해 점차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조영남 2012).

중국은 2010년 일본의 경제규모를 추월하면서 실제로 G2 경제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경제가 오는 2026년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15년 '장기 거시경제 전망-2050 주요 발전 추세'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26년 국내총생산(GDP) 28조6천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28조3천억 달러)을 앞질러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이후 장기간 동안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⁴⁾ 이와 같은 중국 굴기는 한국의 준비와 대응에 따라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고, 재앙으로 작용하기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의 새천년을 위한 가치재창조는 중국 굴기시대를 맞이하여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시대에 인천이 핵심 거점으로서 성장을 위한 새천년 성장 플랫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3. 인천 가치 재창조의 기본논리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고도성장을 추진한 결과 세계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단기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표적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 추진과정은 말 그대로 한국사회의 환골탈퇴, 상전벽해로 표현될 수 있다. 구시대의 낡은 관습과 생활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선진제도과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이 과정에서 갯벌이 미래 도시로 변하는 상전벽해도 경험하였다. 결과로서 한국사회는 가난으로부터 탈출하여 글로벌 사회의 선두주자로까지 올라선 대역사를 만들어냈다.

4) EIU는 중국의 GDP는 2050년 105조9천억 달러로 불어나고 미국은 70조9천억 달러에 머물러 양국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2015년 6월 26일 참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얻은 것도 있지만, 또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우리의 전통가치와 문화를 유지 보존하기 보다는, 선진사회의 문화와 문물을 모방과 복제하는데 급급하여 진실로 인천다운 것, 인천 고유의 것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선진사회와 도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결과라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반성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위한 발판마련을 위한 가치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지금까지는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에서 선진도시의 모방과 복제, 시행착오와 임기응변식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선진사회에 접어들었으니 우리의 도시개발도 다른 나라와 도시들이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을 둘러싼 지정학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천년의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III. 새천년 가치재창조를 위한 전략과 정책의 기본 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천년은 글로벌 체제의 재편이 진행되며, 역사의 서진에 의해 아시아가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 중국굴기에 의해 글로벌 사회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 예상된다. 일찍이 Immanuel Wallerstein(1930-)은 세계체제론을 주장하며, 1989년 동구권 붕괴와 함께 글로벌 시대가 전개되었고, 앞으로 50년은 세계가 재편되는 이행기(移行期)가 진행되며 이와 같은 이행기가 지나면 세계는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문명의 서진과 Wallerstein(2004)의 주장을 종합하면, 중국이 새로운 1000년의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 앞바다인 서해는 새천년 시대에 ‘중세의 지중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제 인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지정학적 상황은 인천이 거둬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급변하는 주변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통해 새천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추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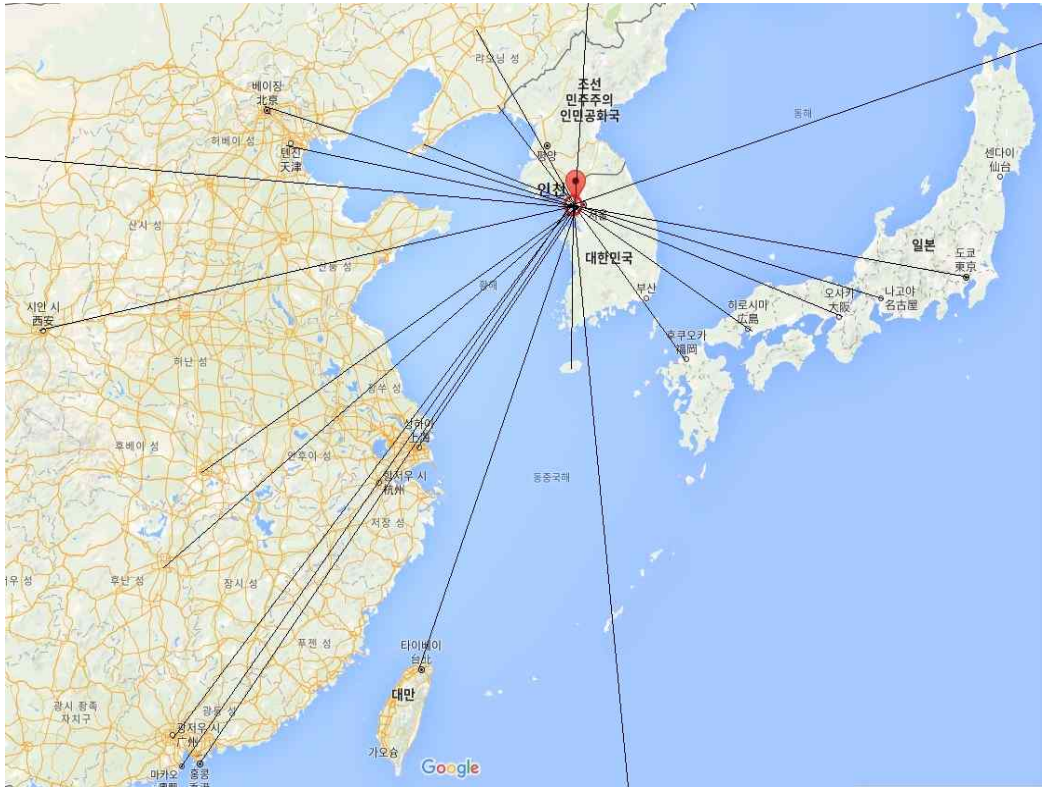
5) 임매뉴얼 모리스 월러스틴 (1930년 9월 28일 뉴욕 출생)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역사 사회과학자이고, 세계체제 분석가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세계가 하나의 경제의 틀로 묶인 것을 그는 세계-체제라고 부른다. 물론 현재 그 중심부에 있는 것은 당연히 서구사회이다. 그 주위에 반주변부, 또 그 바깥으로는 주변부가 둘러싸고 있으며 중심부와 반주변부·주변부 사이에는 착취와 예속관계가 만들어진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빈곤은 이 지역이 바로 수백 년 동안 중심부의 착취를 받은 주변부이기 때문이다.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 시대적 상황에서 인천은 지금부터 선진도시의 모방과 복제를 탈피하고, 인천만의 독특한 내생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 지정학적 상황에서 중국굴기에 대비하여 동북아의 지중해인 서해(황해)시대에 중심이 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 선진도시의 모방과 복제가 아닌 인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모방과 복제를 할 수 없는 인천만의 독특한 내생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천을 비롯한 한국사회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가난과 폐허로부터 생존을 위한 도시개발, 고도성장만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제 한국사회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선진사회와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에서 K-POP이 한류로 자리를 잡았듯이, 도시개발에서도 한류를 창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천을 지탱해온 숨은 가치와 유물들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인천만의 독특한 내생적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인천은 새천년 중국굴기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새천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도시들에게 주도권(헤게모니)을 빼앗겨 변방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인천의 경쟁력 상실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전체의 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동북아 서해 시대에 인천 성장을 위한 개념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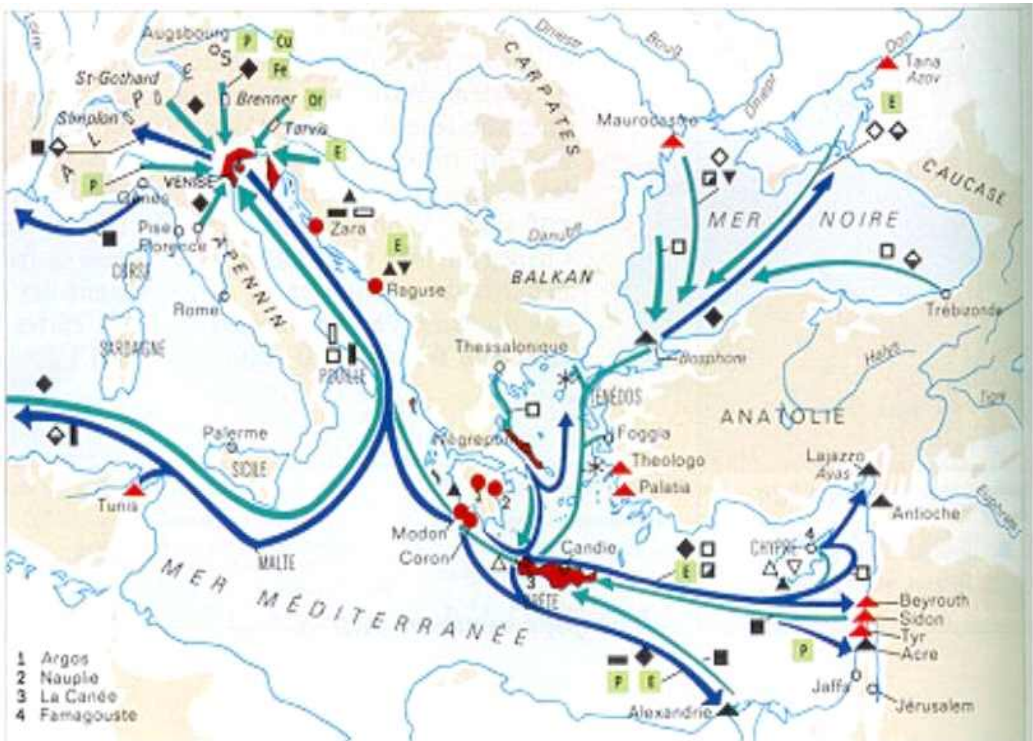
1. 인천 새천년 가치재창조를 위한 전략

<그림 2>는 새천년 가치재창조를 위해 인천이 추구해야 하는 지정학적 전략의 기본 틀을 보여준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인천은 황해의 중심에 있으며, 북경-서울-도쿄를 연결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네트워크의 허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천의 입지적 특성과 역사는 중세시대 지중해 중심지였던 베네치아의 역사·입지적 특성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베네치아는 중세시대 지중해의 경제·무역·문화·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 멀리는 중국 장안에서 시작된 실크로드의 종착점이며, 유럽에서는 지중해와 내륙을 연계시키는 중심지로서 당시에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Crowley 2011). 베네치아가 수상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당시 암흑시대에 영주와 난적들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 앞바다 석호를 매립하여 수상도시를 건설할 것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베네치아 조성의 배경은 갯벌을 매립해 송도 글로벌 도시

를 조성한 인천과 닮은꼴을 보인다.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당시에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제노바, 시라쿠사, 나폴리 등 많은 항구도시들이 있었으나, 베네치아가 수상도시로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륙과 연계망을 확보함으로써 주도권을 쥔취하여 지중해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논리에서 동북아 서해중심 시대에 인천뿐만 아니라 천진, 상해, 대련 등 경쟁상대의 항만도시들 많지만, 인천만이 갖는 내생적 특성과 가치를 개발 및 증폭시킴으로써 서해 중심시대에 헤게모니를 쥔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중세 지중해 시대의 베네치아

중국굴기의 서해시대에 인천이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 요인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첫째, 주요 경쟁도시인 상해는 중국 사회주의체제로 인하여 자유와 협력체제 구축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홍콩은 좁은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어 지속불가능한 도시를 연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남쪽에 치우쳐 인천과 비교하여 열세를 보인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중국 견제요인이 인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중국 도시가 중세 베네치아와 같은 글로벌 중심지로 역

할을 수행하는데 거부감을 가지며,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서구와 연계를 위한 거점으로 인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천이 이런 잠재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부터 치열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인천 가치재창조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인천 가치재창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접근방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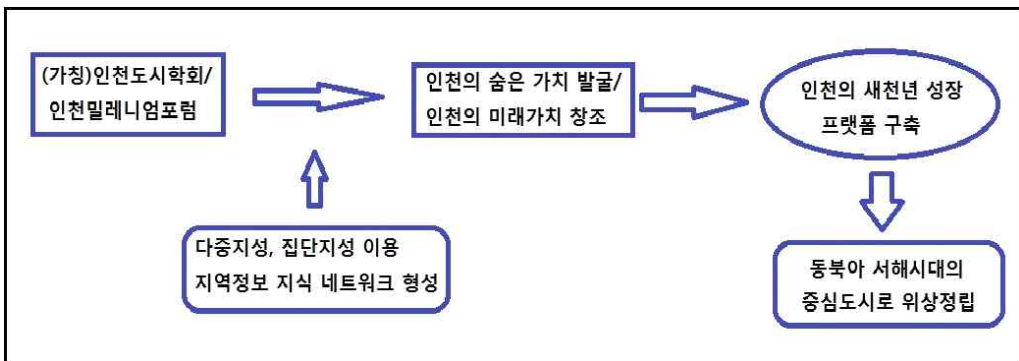
베네치아가 8세기부터 모래 한줌 한줌을 쌓아 천년을 지속한 수상도시를 만들었듯이, 암스테르담 사람들의 바다에 독을 쌓아 근대 자유도시를 조성하였듯이(Shorto, 2013), 지금부터 인천의 도시개발은 단기적, 임기응변식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앞으로 새로운 천년 동안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천에서 수행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새천년(1000년)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8세기부터 조성된 베네치아의 건축물, 도로, 분수, 광장, 수변 공간, 디자인 등이 1000년 이상을 버티며 현재의 베네치아를 ‘지중해의 명품도시’로 만들었듯이, 지금부터 인천에서 조성하는 건물, 나무 한그루, 거리, 광장, 공원, 박물관, 대학 등 주요 사업들은 앞으로 1000년의 보존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남도록 도시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2000년대의 초입인 지금부터 인천의 초석과 기틀을 다져야 앞으로 1000년이 튼튼한 도시 인천을 건설할 수 있으며, 새천년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쟁취할 수 있는 world city network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두리의 변방도시로 인천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새천년이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인천의 가치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실천방식: 인천 도시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

새천년을 지탱할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위해서는 인천의 주요 주체들 사이에 협력과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세계가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 과학기술의 발달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고속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더욱 심화된 무한경쟁사회에서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동원 및 공유되는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관·연·시민단체들 사이에 신뢰와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집단지성·다중지혜(collective wisdom)를 도출하기 위한 도시 네트워크가 확립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식으로 (가칭)인천미래니움포럼 혹은 인천도시학회(Incheon Metropolitan Science Association)의 설립을 강력히 제안한다.

그 동안 인천에는 지역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모임과 포럼들이 설치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당면한 인천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정규적 포럼과 모임은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인천의 주요 시민단체인 황해문화가 360회 이상의 ‘아침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천의 현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듣는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천에 소재한 대학과 연구소, 시민단체들에서 간헐적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인천의 현안과 장기적 계획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 및 분석, 비판과 정책제시를 위한 전문가 모임과 학회는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새천년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위한 집단지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들-산업체, 대학, 정부, 연구소, 시민단체 등-을 결집하기 위한 포럼/학회를 설립하여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4>는 이를 위한 개념 틀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4> 인천 도시 거버넌스의 개념 틀

IV. 맺는 말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시를 선별적으로 성장시킨다. 1차 산업혁명은 런던의 성장을 가져왔고, 2차 산업혁명은 뉴욕의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3차 산업혁명은 실리콘밸리의 성장을 가져왔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서쪽에 새로운 도시를 성장시킨다. 이것이 역사적 추세(megatrend)라면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의 어떤 도시를 선별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2000년대에는 중국이 G1으로 등극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

고 있다. 중국굴기의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서해가 세계의 중심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여 인천은 동북아 서해시대에 중심도시로서 세계모니를 쟁취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가난과 폐허에서 생존을 위한 도시, 고도성장만을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어왔다. 이제는 한국도 어느 정도 성숙사회에 접어들어 고도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 향상, 다른 나라가 본받을 수 있는 한류도시를 건설해야 할 때이다. 즉, 유럽의 도시들이 중세시대부터 천년이상을 버틴 가치 있는 도시를 건설하였듯이, 인천도 지금부터 천년을 지향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중해 시대에 베네치아가 바다를 메꿔 수상도시를 만들었듯이, 인천 또한 앞바다를 메꿔 송도와 영종도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여 중세 시대에 베네치아가 글로벌 중심지 기능을 수행한 것과 같이, 새로운 2000년대에 인천이 동북아 서해의 글로벌 중심지가 되기 위한 초석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인천 가치재창조의 주요 목적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천권. 2014. 『현대도시행정』. 대영문화사.
- 이어령. 2008. 『올림픽 코드가 중국을 바꾼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 전자신문. 2016. 다보스 포럼, 제4차 산업혁명 기대와 우려 교차. 2016/1/24 기사.
- 조영남. 2012. 『용과 춤을 추자』. 민음사.
- 연합뉴스. 2015. 英 평가기관 "중국경제, 2026년 미국 추월한다." 2015/6/26 기사.
- _____. 2016. <지역이슈> '인천 가치' 재창조로 새 성장동력 찾는다. 2016/2/8 기사.
- Crowley, R. 2011. City of Fortune: How Venice Won and Lost a Naval Empire. London: The Andrew Lownie Literary Ltd. 우태영 옮김. 『부의 도시 베네치아』. 다른 세상.
- Shorto, R. 2013. Amsterdam: A History of the World's Most Liberal City. New York: Vintage. 허영은 옮김. 『암스테르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책 세상.
- Wallerstein, I. 2004. World-systems Analysis. In World System History, ed. George Modelski, in Encyclopedia of Life Support Systems (EOLS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ESCO, Eolss Publishers, Oxford, UK.

ABSTRACT

A Study on the Value Recreation of Incheon Metro City

Kim Cheon Kwuan*

This paper discussed the value recreation project, currently promoted by Incheon Metro Government.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investigated the theoretical base, policy framework and methodological approach for the value recreation movement.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in order to expand Incheon city competitiveness in new millennium,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thoroughly for China's Rise and create indigenous values for becoming a global city in the Hwang-hae(West-Sea) Age.

Key Words: Incheon Value Recreation, New Millennium, China Rise, Hwang-hae Age, City Competitiveness.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